

엔도슈사쿠(遠藤周作) 『침묵(沈黙)』의 기독교관 연구

— 『침묵』의 등장인물과 성경 인물의 대조를
중심으로—

이 경 순*

(e-mail : bluewasavi@daum.net)

<目 次>

- | | |
|-------------------|--------------------------|
| 1. 들어가기 | 4. 기치지로를 통해 본 『침묵』의 기독교관 |
| 2. 로드리고의 타협과 기독교관 | 5. 나가기 |
| 3. 페레이라의 일본 늪지론 | |

キーワード：沈黙(Silent), 基督觀(Christian View), 日本沼地論(Japanese swamp theory), 弱者(The weak), 謎(Riddle), 悔改(Repentance)

1. 들어가기

일본은 2009년 기독교선교(프로테스탄) 150주년을 맞이하였다. 한국보다 30년이나 앞선 것이다. 그에 비해 기독교신자는 국민인구 1억2000만의 1%이하에 지나지 않는다.¹⁾ 한국이 30%²⁾, 중국이 5-10%의 기독교신자가 있는 것에 비하

* 고려대학교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일본근현대문학전공

1) 日本のキリスト教教勢の概数(概数) (2016년도)

	교회수	교사수	신자수	대인구비
카톨릭	970	1,400인	44万人	0.34%
정통파	70	55인	1万人	0.01%
프로테스탄	8,000	9,200인	60万人	0.47%
합계	9,040	10,655인	105万人	0.82%

東京基督教大學 國際宣教センター、日本宣教リサーチ、2018年4月、JMR調査レポート(2017年度) http://www.tci.ac.jp/wp-content/uploads/2015/08/JMR_report_2017.pdf#search='jm

면 턱없이 적은 수이다.³⁾ 일본에 기독교 포교가 시작된 것은 1549년, 예수회의 포교자 자비에르 (Francisco de Xavier)가 건너온 이후의 일이다.⁴⁾ 당시 활발한 통상무역과 함께 선교사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이유로 많은 수의 크리스찬이 있던 시대였다. 그러나 기리시탄(キリシタン)⁵⁾ 최대의 보호자라 불리는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의 사후, 158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富秀吉)에 의해 선교사추방령이 나오면서 최초의 조직적 박해가 시작되었다. 결국, 1638년 시마바라의 난(島原の乱)⁶⁾ 이후, 기리시탄은 사교(邪教)라는 이유로 금교령 고찰이 전국에 불게 되면서 극한 단속과 후미에(踏み絵)⁷⁾를 시작으로 심한 박해와 고문이 이어졌다.

r%E8%AA%BF%E6%9F%BB%E3%83%AC%E3%83%9D%E3%83%BC%E3%83%88'
(검색일: 2019.05.25.)

- 2) 2016년12월에 한국통계청이 발표한 「2015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한국국민 중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43.9%, 가지고 있지 않은 국민은 (무종교) 56.1%였다.

	2005年	2015年
무종교	2182万6000 (47.1%)	2749万9000 (56.1%)
불교	1058万8000 (22.8%)	761万9000 (15.5%)
기독교(프로테스탄트)	844万6000 (18.2%)	967万6000 (19.7%)
기독교(카톨릭)	501万5000 (10.8%)	389万 (7.9%)

한국의 종교인구 (한국통계청, 2016년12월) http://www.tci.ac.jp/wp-content/uploads/2015/08/JMR_report_2017.pdf#search='jmr%E8%AA%BF%E6%9F%BB%E3%83%AC%E3%83%9D%E3%83%BC%E3%83%88' (검색일: 2019.05.25.)

- 3) 古屋安雄(2009) 『なぜ日本にキリスト教は広まらないのか』 教文館、pp.9-10.
4) 武田清子(1959) 「日本の精神的土壌とキリスト教」 『人間観の相剋』 弘文堂、pp.3-4.
5) 기리시탄(キリシタン)은 포르투갈어 Christao의 일본식 차음으로, 일본 전국시대부터 에도시대와 메이지 시대 초기 무렵까지 사용되어 온 말이다.

中村敏著, 박창수역(2016) 『일본 기독교 선교의 역사』 흥성사, p.10.

- 6) 시마바라의 난(島原の乱)은 1637년 12월부터 1638년 4월까지 에도시대 초기에 규슈 서쪽의 히젠 국(肥前国)에 속한 시마바라 반도(島原半島)와 히고 국(肥後国)에 속한 아마쿠사 제도(島原半島)에 사는 주민들이 일으킨 반란이다. 반란이 일어난 지역의 명칭을 따서 '시마바라의 난'이나 '시마바라·아마쿠사의 난'이라고 한다.

<https://ja.wikipedia.org/wiki/%E5%B3%B6%E5%8E%9F%E3%81%AE%E4%B9%B1> (검색일: 2019.12.20.)

- 7) '발로 밟는 그림'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나 성모마리아의 상을 파서 분떠 만든 금속판으로 기독교 성도로 의심이 가는 사람에게 밟게 해서, 신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거나 신앙을 버리는 표시로 사용한 물건.

遠藤周作, V·C·ゲッセル他(1994) 『「遠藤周作」とShusaku Endo』 春秋社、p.18.

엔도 슈사쿠(遠藤周作, 1923년3월27일-1996년9월29일, 이하 엔도로 칭한다)의 『침묵(沈黙)』은 기독교박해가 가장 심했던 17세기를 배경으로, 검게 패인 한 장의 후미에에서 시작되었다. 신앙을 부인해야만 살 수 있는, 불신의 경계선에서 고민하는 인물들에 대한 심리묘사를 치밀하게 그려낸 소설이다.

1966년 3월 신초사(新潮社)에서 간행된 『침묵』은, 그해 10월 제2회 다니자키 준이치로상(谷崎潤一郎賞)을 수상하는데, 야나이하라 이사쿠(矢内原伊作)는, ‘후미에를 밟은 사제의 심리를 추궁하고, 신앙문제를 정면에서 다룬 역작이다.’⁸⁾라고 평가를 내리면서도, 페레이라의 일본 늪지설⁹⁾을 비롯해 엔도의 종교관에 비판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윌리엄 존스톤(William Johnstone) 또한 ‘동서(東西) 대립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기독교가 일본이라는 수렁에서 정착하는 데에는 철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결론을 이끌어낸 최초의 카톨릭 작가’¹⁰⁾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사레지오회 사제인 알로이지오 델코르(Aloysio Del Col)¹¹⁾도 엔도의 문학은, 기독교와 성서를 테마로 했다고는 하나 포교에 있어서 매우 큰 마이너스이고, 특히 비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왜곡된 기독교’를 소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¹²⁾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서 기독교의 대표적인 작가이자 일본에서의 기독교 토착화에 대한 문제의 쟁점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 『침묵』의 분석을 통해, 왜 일본에서 기독교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것인지에 대한 그 수수께끼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가 엔도의 ‘자기중심적인 왜곡된 기독교관’에 대해 작품의 외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논하고 있었다면, 본 논문에서는 『침묵』의 주요 등장인물들이 성경의 인물들과 비교와 대치를 이어가며 치밀한 질문을 지속시키고 있는 점에서, 작품 『침묵』의 내적인 종교적 의의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에 『침묵』의 등장인물들을 통해 본 기독교의

8) 矢内原伊作(1996) 「ころびパレレンの“信仰” 遠藤周作『沈黙』」(『朝日ジャーナル』1996年5月8日) 石内徹編『遠藤周作「沈黙」作品論集』クレス出版、p.33.

9) 작품 『침묵』에서 배교한 사제 페레이라가 로드리고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늪지로 표현. (遠藤周作(1999) 『遠藤周作文学全集』第二卷、新潮社、p.295.)

10) ウィリアム・ジョンソン(1991) 「『沈黙』-その背景と意識」 江藤淳他『群像 日本の作家 第22巻 遠藤秀作』小学館、p.168.

11) 알로이지오 델코르(1920-1995), 이탈리아 출신의 신부로 사레지오회 사제.

12) デルコル神父・バルバロ神父著(1994) 「キリスト者の信条、踏絵について」 『ご存じですか? 41』世のひかり社、p.6.

특정이 일본의 기독교 토착화와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로드리고의 타협과 기독교관

『침묵』은 기독교 문학의 대표작품으로서 다양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만,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로드리고가 들은 신의 음성, ‘밟아도 좋다’¹³⁾ 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침묵』이 발표된 1966년, 현직 사제였던 가스야 고이치(粕谷甲一)는 ‘밟아도 좋다’라는, 신의 말씀에 대해 ‘신의 말씀이라는 플랫폼카드야말로 배교를 의(義)로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것’¹⁴⁾이며, 이러한 엔도의 자기중심적이고 왜곡된 기독교관이 기독교 스스로의 붕괴를 초래하는 긴요한 이유의 한 가지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엔도는 ‘밟아도 좋다’라는 신의 음성 뒤에 ‘닭이 멀리서 울었다’라고 하는 배교를 암시하는 설정을 해 놓았다. 또한 엔도는 서양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하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하고 있다.¹⁵⁾ 배교를 암시하는 신의 음성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모순이나, 엔도는 이런 모순된 구조를 성경의 베드로의 배교와 로드리고의 배교로 대비시키고 있다. 이 소설의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곳에서 배교라는 이 대조적인 구조를 설정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요컨대, 대조되는 구조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이남지는, 로드리고가 기치지로를 수용할 수 있게 해 준 것은 바로 배교의 경험¹⁶⁾이라고 말한다. 최진숙도 엔도는 ‘어머니의 종교’를 제시함으로써 기독교라는 종교와 일본의

13) “밟아도 좋다. 너의 발은 지금, 아플 것이다. 지금까지 나의 얼굴을 밟은 인간들과 똑같이 아플 것이다. 그렇지만 그 발의 고통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너희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나눌 것이다. 그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다.”

“踏むがいい。お前の足は今、痛いだろう。今日まで私の顔を踏んだ人間たちと同じように痛むだろう。だがその足の痛さだけでも十分だ。私はお前たちのその痛さと苦しみをわかちあう。そのために私はいるのだから”

(遠藤周作(1999)『遠藤周作文学全集2』新潮社、p.325.)

14) 粕谷甲一(1966)「『沈黙』について」石内徹編『遠藤周作「沈黙」作品論集』クレス出版、pp.48-49.

15) 遠藤周作(1992)『沈黙の声』東京プレジデント社、pp.69-70.

16) 이남지(2007)『엔도 슈사쿠의 「침묵」의 세계』충남대학교석사논문, pp.38-39.

풍토 사이에 있었던 거리감을 극복하고자 모색¹⁷⁾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엔도의 모성적 그리스도상의 묘사는 『예수의 생애(イエスの生涯)』의 머리말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일본인의 종교심은- 불교를 받아들였던 때부터 그랬지만-, 함께 괴로워하고, 약함을 받아주는 사람에게는 공명(共鳴)하지만, 인간을 엄하게 심판하고 벌을 주는 초월적인 존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요컨대, 일본인이 신이나 부처에게 구하고 있는 것은, 엄격한 부친이 아니라 온유한 모친인 것이다. 이 사실이 머리에 있기에, 나는 신을 기독교의 특징적인 경향인 부친의 이미지로 그리기보다, 오히려 예수에게서 나타나는, 신의 모성적인 온유한 면을 그리려고 했다.¹⁸⁾

엔도는 로드리고가 후미에를 밟는 배교를 통해, 약자를 이해하고 비로소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인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고경순도 ‘배교라는 역설적인 순교를 통해 약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교회 성직자들이 가르치는 엄격한 부성적인 신이 아니라 약자를 사랑하는 어머니와도 같은 모성적 그리스도가 필요’¹⁹⁾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 점이야말로 『침묵』이 내포하고 있는 가장 왜곡된 기독교관이라고 할 수 있다.

로드리고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후미에를 밟음과 동시에 배교를 암시하는 답이 우는 이 대조적인 구조를 통해 엔도가 말하고 싶었던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이와 대비되는, 성경 전체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건’과 대조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성경에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의 죽음’과 ‘제자들의 배반’이라는 불편하고 당혹스러운 대치적인 대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²⁰⁾를 말하고 있다.

17) 최진숙(2008) 『엔도 슈사쿠의 침묵연구-신앙과 거리감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석사논문, pp.58-63.

18) 遠藤周作、V・C・ゲッセル他(1994) 『「遠藤周作」とShusaku Endo』春秋社、pp.71-72.
日本人の宗教心は-仏教を受け入れたときからそうだったが-,ともに苦しみ、弱さを受け入れてくれる者には共鳴するが、人間を厳しく裁いて罰を与える超越的な存在は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ない。要するに、日本人が神や仏に求めるのは、厳密な父親ではなくてやさしい母親なのである。この事実が頭にあるので、私は神をキリスト教に特徴的な傾向である父親のイメージで描くよりも、むしろイエスに表される、神の母性的なやさしい面を描こうとした。

19) 고경순(2003) 『엔도 슈사쿠의 「침묵」 연구-모성적 그리스도상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석사논문, pp.41-47.

20) 우리의 죄 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사랑과 공의.

이에 반해, 『침묵』의 클라이막스에서는 모든 것을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 모성성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 『성경』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침묵과는 다른 이질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 만찬 후에 잡혀가는 예수를 보면서 제자들은 그 숨막히고 비참한 순간에 모두 도망갔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희생제물로서의 사명을 다했다. 예수를 배반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베드로가 침묵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 약속한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한 후에는 겁쟁이 제자가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혀 다른 사도로 거듭났다.

그러나 로드리고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모성적인 신을 통해 배교를 합리화하고 있다. 로드리고의 부성적인 신에서 모성적인 신으로의 예수상의 변화는 작가가 처음부터 의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침묵』은 종교와 문학이라는 묘한 경계선에서 줄타기하듯 써 내려간 흔적들로 말미암아 성경과 대조해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구절이 많이 있다. 엔도의 치열했던 종교적 갈등의 추이를 자기연민에서 자기중심적인 언어로 승화시키는 과정에서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聖靈)으로 되어있는 언어이고, 작품 『침묵』은 엔도의 인본적인 언어이기에 서로가 등을 맞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제자들이 성령이 임한 후에 거듭나는 과정과, 로드리고의 배교 후의 변화는 매우 다른 이질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작가는 로드리고가 약자를 품기까지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모성적인 예수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의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 은유적인 이중구조 장치인 성경과의 대조를 통해 분석해 본다면 이러한 사고는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넘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페레이라의 일본 늪지론

엔도는 『침묵』에서, 일본의 정신 풍토에 대해 페레이라를 통해 외래의 모든 것을 흡수해 버리는 늪지에 비유하며, 자신의 문학도 어머니가 입혀준 헐렁헐렁한 서양의 양복을 자신의 몸에 맞도록 일본 옷으로 바꾸는 과정²¹⁾이라고 설

명했다. 페레이라는 일본에서 기독교가 받아들여 지지않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나라는 늪지라네. 결국 자네도 알게 될거야. 이 나라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서운 늪지였다네. 어떤 모종도 그 늪지에 심으면, 뿌리가 썩기 시작한다네. 잎이 누렇게 시들어 간다네. 우리들은 이 늪지에 기독교라는 모종을 심은 거라네.

이 나라 사람들이 그때 믿은 것은 우리들의 신이 아니라네. 그들의 신들이었다네. 그것을 우리들은 오랫동안 모른 채, 일본인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네.

그리스도가 망한 것은 말이야, 자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지 탓도 아니고, 박해 탓도 아니라네. 이 나라에는 아무리 해도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네. 22)

페레이라는 이 인용문에서 보듯이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성장하지 못하는 요인이 존재하며, 그것은 기독교 ‘금지’나 ‘박해’라는 이유보다 한층 근원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에서 선교활동을 수행하며 기독교 박해를 경험한 페레이라의 이 체험적인 일본관은, 작가 엔도의 신앙관²³⁾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하면 등장인물 페레이라가 지적한 일본에서 어떻게 해도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무언가’는 대체 무엇일까? 엔도는 1994년의 어느 인터뷰에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톨릭 신앙에 대한 고뇌

21) 遠藤周作(1975) 『遠藤周作文学全集第十卷』新潮社, p.375.

22) 遠藤周作(1999) 『遠藤周作文学全集2』新潮社, pp.294-298.

この国は沼地だ。やがてお前にもわかるだろうな。この国は考えていたより、もっと恐ろしい沼地だった。どんな苗もその沼地に植えられれば、根が腐りはじめる。葉が黄ばみ枯れて行く。我々はこの沼地に基督教という苗を植えしまった。

この国の者たちがあの頃信じたものは我々の神ではない。彼等の神々だった。それを私たちは長い長い間知らず、日本人が基督教徒になったと思こんでいた。

切支丹が亡びたのはな、お前が考えるように禁制のせいでも、迫害のせいでもない。この国には、どうしても基督教を受けつけぬ何かがあったのだ。

23) 엔도는 기독교(基督教)를, 어머니가 입혀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헐렁헐렁한 서양의 양복을 자신의 몸에 맞도록 일본옷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遠藤周作(1975) 『合わない洋服』 『遠藤周作分文学全集10』新潮社, p.375.) 즉, 엔도는 자신에게 맞는 기독교로 승화시킨 것으로, 페레이라가 말한 처음에 심은 기독교라는 모종과는 다른 ‘무언가’인 것이다.

의 원인으로서는 자신 속에 있는 일본이라고 하는 늪지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²⁴⁾

요컨대, 엔도는 헐렁헐렁한 옷을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려는 작업이 바로 자신만의 문학²⁵⁾이라고 말하고 있다. 헐렁헐렁한 양복을 자신에게 맞는 일본 옷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 페레이라가 위의 인용문에서 지적한 굴절된 자신이 만든 신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인의 기독교수용이라는 문제는 엔도의 문학을 관통하는 하나의 테마인데, 엔도는 『나와 기독교(私とキリスト教)』라는 책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일본인의 감각으로서 크게 ‘신에 대한 무감각’, ‘죄에 대한 무감각’, ‘죽음에 대한 무감각’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²⁶⁾ 이러한 지적은 일본인들의 감각과 의식 속에는 기독교의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페레이라는 ‘어떻게 해도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무언가’를 일본의 늪지로 비유하며, 자신이 기독교를 배교한 이유에 대해 신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내가 배교한 것은 말야, 듣고 있나? 들어주게나. 그 뒤에 여기 구덩이에 넣어진 후에 귀에 들려오던 저 소리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네. 나는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무엇 하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네....²⁷⁾

페레이라는 오물이 가득 들어있는 더러운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려 고문을 당하면서 감내할 수 없는 신도들의 고통을 눈앞에 두고 필사적으로 신의 반응을 기도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이러한 백성들의 고통에 침묵하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배교했다고 말한다.

24) 遠藤周作、V·C·ゲッセル他(1994) 『「遠藤周作」と Shusaku Endo』 春秋社、p.165.

25) 遠藤周作(1975) 「合わない洋服」 『遠藤周作分文学全集10』 新潮社、pp.373-376.

엔도는 기독교(基督教)를, 어머니가 입혀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헐렁헐렁한 서양의 양복을 자신의 몸에 맞도록 일본옷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엔도는 자신에게 맞는 기독교로 승화시킨 것으로, 페레이라가 말한 한 처음에 심은 기독교라는 모종과는 다른 ‘무언가’인 것이다.

26) 遠藤周作(1963) 「宗教と文学」 『私とキリスト教』 南北社.

27) 遠藤周作(1999) 『遠藤周作文学全集2』 新潮社、pp.309-310.

わしが転んだのはな、いいか。聞きなさい。そのあとでここに入れられ耳にしたあの声に、神が何ひとつ、なさらなかったからだ。わしは必死で神に祈ったが、神は何もしなかったからだ...

『침묵』 내의 이 긴박한 장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다 쏟아내고 죽기까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모두 도망쳤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보아온 제자들로서는 피를 다 쏟아내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연약한 예수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가네코 다테오(兼子盾夫)는 『침묵』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²⁸⁾ 라는 수수께끼 같은 예수의 마지막 말씀에 대한 엔도의 대답²⁹⁾ 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외침은 수수께끼 같은 예수의 마지막 말이기도 하지만 연약한 육신의 마지막 외침이기도 한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어가는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언가 해주지 않을까 기다렸다.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처절한 침묵을 지켰다.

『침묵』에서는 무언가 해주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이 긴박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배교’라는 ‘타협’을 하고 만다. 그러나 기독교가 뿌리내릴 수 없는 늪지와도 같은 일본에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는 페레이라가 있는가 하면, 고문을 끝까지 견디어 낸 많은 신도들이 있었다. 따라서 범신론적인 경향이 강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낸 신도들을 두고서 일본의 기독교 문제는 일본이라는 늪지라고 하는 문화적인 환경 탓을 주장하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오히려 종교 탄압과 박해라는 긴박한 순간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탓을 하며 현실과 ‘타협’해 버리는 페레이라의 사고야말로 일본에 기독교가 뿌리내리지 못하는 그 ‘무언가’임을 밝히고자 한다.

4. 기치지로를 통해 본 『침묵』의 기독교관

『침묵』에서 논란이 되어온 또 다른 주제는 ‘약자의 논리’이다. 『침묵』의 중심인물인 기치지로에 대해 엔도는 작가 본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28) 대한성서공회(2017) 『한일대조 성경전서(개역개정판/신공동역)』 대한성서공회, pp.53-54. (마태복음27장45-56, 마가15장 33-41, 누가23장44-49, 요한19장28-30)

29) 兼子盾夫(1999) 「遠藤周作における文学と宗教 I - 『沈黙』再考-」 『横浜女子短期大学紀要』第14号、横浜女子短期大学、p.19.

그 기치지로는 저입니다.

그 기치지료가 가지고 있는 약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약함입니다.

저는 기치지로를 사랑하면서 그 인물을 썼습니다.³⁰⁾

엔도는 왜 기치지रो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며 그 등장인물에 애정을 표하고 있는 것일까? 엔도는 작품 『침묵』이 나가사키에서 후미에를 처음 보았을 때 느낀 생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 작품의 창작 동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수년전, 나가사키에서 처음으로 후미에를 봤을 때부터, 나의 이 소설은 조금씩 형태를 잡기 시작했다. 긴 병환 동안, 나는 마멸한 후미에의 그리스도의 얼굴과, 그 옆에 철퍼덕 남은 검은 발가락의 흔적을, 몇 번이고 마음에 되새겼다. 배교한 까닭에 교회도 말하기를 꺼려하는, 역사에서도 말살된 인간을, 침묵 안에서 다시 되살아나게 하는 일, 그리고 나 자신의 마음을 거기에 투영하는 일, 그것이 이 소설을 쓰기 시작한 동기이다.³¹⁾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엔도는 일본 기독교사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이 후미에와 배교사건을 접하면서 당시 이러한 역사에서 말살된 사람들을 그의 작품에 되살리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엔도는 자신의 마음을 투영시킬 인물, 자신을 대변할 인물로 약자 중에 약자인 기치지로를 선택했다. 엔도는 만약 불행하게도 자신이 박해의 시대에 태어났다면, 기치지रो와 같은 인간이 되었을 거리고 생각했다.³²⁾ 엔도는 기치지रो의 입을 통해 이해하지 못할 참혹한 고통에 대해 호소한다.

30) 遠藤周作, V·C·ゲッセル他(1994) 『「遠藤周作」とShusaku Endo』春秋社, p.84.

あのキチジローは私です。

あのキチジローもっている弱さは私がもっている弱さです。

私はキチジローを愛しながらあの人物を書きました。

31) 遠藤周作(1999) 『遠藤周作文学全集2』新潮社, p.338.

数年まえ、長崎ではじめて踏絵を見た時から、私のこの小説は少しずつ形を取りはじめた。長い病気の間、私は摩滅した踏絵のキリストの顔と、その横にべったり残った黒い足指を、幾度も心に甦らせた。転び者ゆえに教会も語るを好まず、歴史からも抹殺された人間を、それら沈黙の中から再び生き返らせること、そして 私自身の心をそこに投影すること、それがこの小説を書き出した動機である。

32) 遠藤周作, V·C·ゲッセル他(1994) 『「遠藤周作」とShusaku Endo』春秋社, p.30.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요?

신부님, 저희들은 아무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요.³³⁾

기치지로의 이 원망스러운 질문은 작품 『침묵』의 기초처럼 계속 이어진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비참한 일본의 농민들에게, 일본인들에게 박해와 고문이라는 시련을 주시는지, 더 무서운 사실은 많은 신도들이 고통 받고 교회가 붕괴되어 가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기치지로는 고통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요?’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어서는 안돼요’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발화는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 질문이라 말할 수 있다. 기치지로의 이와 같은 생각과 판단은 작품의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치지로는 로드리고를 팔아넘긴 후에 옥사에 찾아가 애원하듯 외친다.

신부님, 신부님....저는 후미에도 밟았습니다만, 모키치나 이치소는 강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강해질 수 없습니다.....(중략)그렇지만 제게는 할 말이 있어요. 후미에를 밟은 사람에게는 밟은 저마다의 할 말이 있는 거라구요. 후미에를 제가 기뻐하며 밟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밟은 이 발은 아프다고요. 나를 약한 자로 태어나게 했으면서 강한 자를 흉내를 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무리라고요. 억지라고요.³⁴⁾

기치지로의 유일한 논리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 다케다 도모주(武田友寿)는, 빈상에 교활한 이 ‘약자(弱者)’는, 분명히 자기고유의 논리로 인생을 살아가는 ‘강자(强者)’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바꿔 말하면, 기치지로가 ‘복권(復權)된 약자’, 즉 약자로서의 존재권을 주장할 것을 인지한 인간³⁵⁾이

33) 遠藤周作(1999) 『遠藤周作文学全集 2』新潮社、p.223.

なんのために、こげん苦しみばデウス様はおらになさつとやろか
パードレ、おらたちあ、なあんも悪かことばしとらんとに、

34) 遠藤周作(1999) 『遠藤周作文学全集 2』新潮社、p.269.

パードレよォ。パードレよォ。

俺あ、踏絵ば踏みましたとも。モキチヤイチゾウは強か。

俺あ、あげん強うなれまっせんもん。

じゃが、俺にや俺の言い分があつと。踏絵ば踏んだ者には、踏んだ言い分があつと。踏絵をば俺が悦んで踏んだとでも思つとつか。踏んだこの足は痛か。痛かよォ。俺を弱か者に生まれさせおきなから、強か者の真似ばせろとデウスさまは仰せ出される。それは無理無法と言うもんじゃい。

35) 武田友寿(1969) 『遠藤周作の世界』中央出版社、p.353.

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기치지로로는 약하게 태어난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자를 흉내내라고 한 적이 없다. 이것도 기치지로, 나아가 엔도의 생각이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엔도는 기치지로를 통해 본인이 약자임을 강조하면서 약자이기에 후미에를 밟을 수 밖에 없었다는 자기만의 강한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반복해서 로드리고를 찾아가 고해를 하고 있다. 얼핏 모순되어 보이고 구태의연한 기치지로의 행동을, 엔도는 가쿠레 기리시탄의 신앙으로 승화시키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가네코 다테오(兼子盾夫)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몇 번이고 다시 읽어 보아도 기치지로의 약함에서 나오는 배신과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고해가 반복되는 필연성이 아무래도 감이 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기치지로가 「잠복 기리시탄」의 「은유」 메타포 라고 해석을 하면, 기치지로의 3번의 배신과 집요한 고해의 간청의 의미도 모두 이해된다. 즉 기치지로로 대표되는 잠복 기리시탄은 매년, 매년 「후미에」를 밟고서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신심을 되돌리기 위한 「오라쇼(기도,포르투갈어)」를 소리높여 부른다.³⁶⁾

이러한 기치지로의 집요한 배반과 믿음 되돌리기의 간청은 그의 존재를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후미에를 밟아야만 하는 쪽의, 다시 말해 가쿠레 기리시탄³⁷⁾(隠れキリシタン)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심리(굴욕(屈辱)과 참괴(慙愧)의 염)를 알면 납득할 수 있다. 진심으로 엔도가 말하고

36) 兼子盾夫(2013)「遠藤周作における「語り」の方法としての「象徴」と「暗喩」:『沈黙』の「白い光」と「キチジロー」を中心に」『人間学紀要』上智人間学会、p.79.

何度、読み返してもキチジローの弱さからの裏切りと罪の赦しのための告解の反復される必然性がどうしてもピンとこなかったのである。しかしこのキチジローが「潜伏キリシタン」の「暗喩」メタファーだとする解釈にたてば、キチジローの再三の裏切りと執拗な告解の懇請の意味もすべて了解される。即ちキチジローに代表される潜伏キリシタンは毎年、毎年「踏絵」を踏んでは後悔の涙を流し、信心戻しの「オラショ」を唱える。

37) 가쿠레 기리시탄은 일본의 에도시대에 에도 막부가 금교령을 포고하고, 기독교를 탄압한 후에도 숨어서 신앙을 이어온 신자들이다. 강제 개종에 의해 불교를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기독교를 위장 배교한 신자들.

<https://ja.wikipedia.org/wiki/%E9%9A%A0%E3%82%8C%E3%82%AD%E3%83%AA%E3%82%B7%E3%82%BF%E3%83%B3> (검색일: 2019.12.20.)

싶었던 것은 몇 번이고 후미에를 밟으면서 신앙을 버릴 수 없었던, 그 배반자들의 뗏뗏하지 못한 믿음의 형태였다. 소설에서는, 이 반복되는 배교와 용서하기치지로의 행위로 상징된다. 완전하게 배교한 많은 신자들은 그것으로 끝났겠지만, 배교하지 않은 숨어있던 자들은 매년, 후미에를 밟을 때마다 비참하고 쓰라린 마음으로 배교자 자신을 책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가네코는 기치지로의 반복되는 배신 행위와 로드리고에 대한 세 번에 걸친 고해 간청은, 기치지로로 상징되는 가쿠레 기리시탄의 굴절된 신앙의 형태³⁸⁾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기치지로는 가쿠레 기리시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신앙의 형태를 보인다. 후미에를 밟고 굴욕과 참괴의 염을 가지고 쓰라린 마음으로 용서해 달라고 외치는 가쿠레 기리시탄들의 믿음과, 하나님이 약하게 태어나게 했으니 강자가 아니기에 배교할 수밖에 없다는 기치지로의 믿음은 전혀 성격이 다른 행위이기 때문이다.

『침묵』의 등장인물 기치지로는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해주어야 하는 ‘신(神)’으로 보고 있다. 성경의 요한복음 6장 1절-15절을³⁹⁾ 살펴보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원대로 나눠주는 장면이 나온다. 이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오실 참된 선지자라 하며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 그러나 예수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⁴⁰⁾

즉,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배를 채워줄 구세주,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구세주를 위한 것이지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님을 예수는 꿰뚫어 보고 말한 것이다. 기치지로 또한 하나님을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한 통곡도 없고, 변화도 없다. 『침묵』의 주역은

38) 兼子盾夫(1999) 「遠藤周作における文学と宗教 I - 『沈黙』再考-」 『横浜女子短期大学紀要』第14号 `横浜女子短期大学、p.19、26.

39) 오병이어(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사건은, 요한복음 6장1-15절(대한성서공회(2017) 『한일대조 성경전서(개역개정판/신공동역)』 대한성서공회, pp.160-161), 마태복음 14장13-21, 마가복음6장 30-44, 누가복음 9장10-17에 나온다.

40) 대한성서공회(2017) 『한일대조 성경전서(개역개정판/신공동역)』 대한성서공회, pp.160-161. (신약, 요한복음6장1-15)

기치지로임을 의심할 이유는 없으나, 작가는 이 주인공의 존재권을 성경에 의해 더욱더 권위를 세우려고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라 가서 너의 할 일을 하라’ 라는 문구가 이에 해당한다.⁴¹⁾ 이 구절은 예수가 배교자 유다에게 말한 성경 구절인데, 로드리고가 이를 인용해 기치지로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로드리고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말이 이해가 된 것은 후미에를 밟는 순간이었다. 약자의 입장이 되고서야 기치지로를 이해할 수 있었고 교활하고 의지박약한 기치지로의 모습이 자신 안에 있음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이런 심정으로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된다. 결국 엔도는 기치지로의 기구한 약자의 운명을 통해 로드리고의 허구적인 신앙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하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도가 자신의 모습이라고 지적한 기치지로의 모습은 선행연구가 주장하듯이, 기독교 탄압 이후 숨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가쿠레 기리시탄의 상징이라고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기치지로는 인격적으로 신과 연결된 인물이라기보다는 신이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해주어야 하는 대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다에 지나지 않는 약한 본성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5. 나가기

『침묵』은 일본의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고문이 가장 심각했던 17세기 초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신앙을 부인해야만 살 수 있는 불안하고 어두운 시기를 엔도는 선택했다. 자신의 불안하고 긴장되는 심리 상태를 작품을 통해 풀어내고 싶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침묵』에서는 약자 중심의 치밀한 심리묘사가 등장인물을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요?’ 라는 질문은, 소설 『침묵』을 관통하는 커다란 기조였다. 앞서 이 질문의 기저에는 ‘이런 고통을 주시면 안돼요’ 라고 문제제기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침묵』의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밟아도 좋다’라는 신의 음성과 ‘답이 울었다’라는 대조적인 중층 구조속에서 엔도는 수수께끼와도 같은 질문을 성경

41) 武田友寿(1969) 『遠藤周作の世界』 中央出版社、p.360.

을 인용해 한층더 고조시키고 있으나, 자기 중심적인 모성적인 예수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였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일본이 왜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기독교인이 현저하게 적은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기독교 토착화에 대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철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카톨릭 작가 엔도의 『침묵』의 분석을 통해 그 수수께끼를 풀고자 했다.

앞선 『침묵』의 선행연구에서는, ‘뱀아도 좋다’라는 신의 음성과 ‘일본의 늪지설’, ‘약자의 복권’이 주로 강조되어 왔으며, 이런 여러 이유가 일본의 기독교 토착화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왔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 선행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사실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상의 작품 『침묵』 분석을 통해, 왜곡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고 비판을 받아왔던 부분이 꼭 일본인에게만 있는 현상이 아니며, 보편적인 우리 모두에게 있는 현상이라는 점(본문 성경인용)과, 이러한 현상을 일본의 기독교 문제로 일반화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일본 사회의 분위기 상 종교적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무신론자가 많은 이유에서 집단주의의 문화를 엿볼 수 있었으며 하지(恥)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는, 대화를 통해 질문하고, 죄를 고백하고, 베드로와 같은 회개를 통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성장하는, 수수께끼와도 같은 기독교적 교리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본의 문화적인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지의 집단주의 문화와 종교의 연관성도 함께 고찰해야 하지만 이는 지면상 다른 논문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침묵』의 등장인물과 성경인물을 대조하여 내적인 종교적인 의의를 살펴보는 것으로, 일본의 기독교 토착화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일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독교인이 적은 것에는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반대로 적지 않은 기독교인이 그 신앙을 이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음을 되새기고 싶다.

【참고문헌】

- 고경순(2003) 『엔도 슈사쿠 「침묵」 연구-모성적 그리스도상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석사논문, pp.41-47.
- 대한성서공회(2017) 『한일대조 성경전서(개역개정판/신공동역)』 대한성서공회, pp.53-54, 160-161. (마태복음27장45-56, 마가15장 33-41, 누가23장44-49, 요한19장28-30, 신약, 요한복음6장1-15)
- 이남지(2007) 『엔도 슈사쿠의 「침묵」 의 세계』 충남대학교석사논문, pp.38-39.
- 최진숙(2008) 『엔도 슈사쿠의 침묵연구-신앙과 거리감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석사논문, pp.58-63.
- 遠藤周作(1999) 『遠藤周作文学全集』第二卷、新潮社、p.223、269、325、338、pp.294-298、309-310.
- 遠藤周作(1975) 『遠藤周作文学全集第十卷』新潮社、pp.373-376.
- 遠藤周作(1992) 『沈黙の声』東京プレジデント社、pp.69-70.
- 遠藤周作(1963) 「宗教と文学」 『私とキリスト教』南北社.
- 遠藤周作、V.C.ゲッセル他(1994) 『「遠藤周作」と Shusaku Endo』春秋社、p.18、30、84、165、pp.71-72.
- 粕谷甲一(1966) 「『沈黙』について」石内徹編『遠藤周作「沈黙」作品論集』クレス出版、pp.48-49.
- 兼子盾夫(1999) 「遠藤周作における文学と宗教 I - 『沈黙』再考-」 『横浜女子短期大学紀要』第14号、横浜女子短期大学、p.19、26.
- 兼子盾牡(2013) 「遠藤周作における「語り」の方法としての「象徴」と「暗喩」: 『沈黙』の「白い光」と「キチジロー」を中心に」 『人間学紀要』上智人間学会、p.79. (DOI: <http://digital-archives.sophia.ac.jp/repository/view/repository/00000033306>)
- 古屋安雄(2009) 『なぜ日本にキリスト教は広まらないのか』教文館、pp.9-10.
- 武田清子(1959) 「日本の精神的土壌とキリスト教」 『人間観の相剋』弘文堂、pp.3-4.
- 武田友寿(1969) 『遠藤周作の世界』中央出版社、p.353、360.
- 矢内原伊作(1996) 「ころびバテレンの“信仰” 遠藤周作『沈黙』」 (『朝日ジャーナル』、1996年5月8日) 石内徹編『遠藤周作「沈黙」作品論集』クレス出版、p.33.
- ウィリアム·ジョンソン(1991) 「『沈黙』-その背景と意識」江藤淳他『群像 日本の作家 第22巻 遠藤秀作』小学館、p.168.
- デルコル神父·バルバロ神父著(1994) 「キリスト者の信条、踏絵について」 『ご存じますか? 41』世のひかり社、p.6.
- <https://ja.wikipedia.org/wiki/%E5%B3%B6%E5%8E%9F%E3%81%AE%E4%B9%B1>
일본위키백과 (검색일: 2019.12.20.)
- <https://ja.wikipedia.org/wiki/%E9%9A%A0%E3%82%8C%E3%82%AD%E3%83%AA%E3%82%B7%E3%82%BF%E3%83%B3>
일본위키백과 (검색일: 2019.12.20.)

논문 투고 일자 : 2020. 05. 31.
논문 심사 일자 : 2020. 07. 20.
게재 확정 일자 : 2020. 07. 24.

<要旨>

遠藤周作『沈黙』の基督教観研究
- 『沈黙』の登場人物と聖書の人物との対照を中心に-

李炘純

本論文は、日本がなぜ韓国や中国と比べ、キリスト教徒が顕著に少ないのかに対する疑問から始まった。ゆえに、日本における、基督教の土着化について、問題の争点を全面に出し、徹底的な修正が必要であると結論を導き出したカトリック作家、遠藤の『沈黙』を分析した。

‘歪められたキリスト教を紹介したにすぎない’と言われる作品『沈黙』は、宗教と文学という微妙な境界線で書き下した、自分を投影した作品であると言える。

『沈黙』のクライマックスである、「踏むがいい」と言う神の声と、「鶏が遠くで鳴いた」という、対照的な重層構造の中で、遠藤は謎のような質問を聖書を引用して一層盛り上げている。本論文は、聖書との対照を通して、作家の謎を究めることを目指している。

A Study of the View of Christianity in *Silence* by Shusaku Endo
: With a focus on the contrast between the characters in *Silence* and
those of the Bible

Lee, Kyung-Soon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of why there are significantly fewer Christians in Japan, compared to Korea or China. To determine the answer, an in-depth analysis of the novel, *Silence* written by the Catholic Shusaku Endo, was conducted. This book concluded that there was a need for a thorough revision of the issue of the indigenization of Christianity in Japan.

Silence is a reflection by the author written at the delicate border between religion and literature, though it is sometimes criticized for being nothing more than the introduction of a distorted form of Christianity.

At the climactic moment, in the contrasting structure of the voice of God stating, “You may trample.” and “the rooster crowed”, Endo highlights the mysterious question again by citing the Bibl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mystery presented by the author by comparing it to the Bible.